

삼성, 와이드형 폴더블 공개 임박 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정면대결

갤럭시 언팩 초대장 배포
'새로운 형태' 문구 담겨
노태문 사장, AI 경험 강조



갤럭시 언팩 2026(Galaxy Unpacked July 2026: A New Shape Unfolds) 초대장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달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2026'을 열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한다. 그동안 유지해온 플드·플립 양대 체제를 처음으로 깨고 가로 폭을 넓힌 '와이드형' 폴더블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올가을 첫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는 애플과의 격돌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8일 'A New Shape Unfolds(새로운 형태가 펼쳐진다)'라는 문구를 담은 갤럭시 언팩 초대장을 배포했다. 언팩은 오는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리며 삼성닷컴과 삼성전자 뉴스룸,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세로는 짧고 가로는 넓은 이른바 '여권형' 화면비의 와이드형 디자인을 기본형 '갤럭시 Z 폴드8'(가칭)에 적용하고 기존의 길쭉한 북타입은 S펜을 지원하는 초고성능 모델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가 이어받는 방

식으로 라인업을 이원화한다. 기본형 폴드8은 외부 5.4인치·내부 7.6인치 화면에 펼쳤을 때 화면비가 4대3에 가깝고 무게는 역대 폴드 중 가장 가벼운 200g 안팎이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런던 언팩서 갤럭시 Z 플립8과 갤럭시 워치9 시리즈, 갤럭시 워치 울트라2도 함께 공개할 전망이다. 새 폼팩터는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과 사실상 같은 체급이다. 애플은 오는 9월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접었을 때 5.5인치 안팎이며 펼쳤을 때 7.8인치의 4대3 화면비가 유력해 삼성의 와이드형 폴드8과 형태가 사실상 겹친다. 삼성이 애플의 진입 경로를 먼저 차단하는 맞불 전략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관건은 가격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대형 디스플레이, 힌지 등 높은 제조비용이 겹치며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진 상태다. 전작 폴드7 256GB 출고가가 237만 93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폴드8 기본형은 250만원, 울트라는 300만원을 웃돌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애플 폴더블 아이폰 역시 300만원대 가격이 거론되며 양사 모두 흥행의 최대 변수는 출시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사장)은 초대장과 함께 낸 기고문에서 "가장 중요한 AI는 가장 똑똑한 AI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AI"라며 이번 언팩에서 개인화된 AI 경험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QR코드

koogija_tea@metroseoul.co.kr /구남영 기자

전력기기업계 AI 특수 ... 2분기 호실적 전망

초고압변압기 등 해외수주 증가
생산능력·납기관리 실적변수 작용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국내 전력기기 3사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를 등에 업고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북미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인프라 투자가 초고압변압기와 배전기기 발주로 이어지는 가운데 호주와 유럽에서도 송전망 보강 사업이 확대되면서 하반기 수주 흐름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8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압변압기 등 전력기기 중심의 해외 수주가 늘고 고가진 제품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호주에서도 대형 수주를 확보했다. 지난 2일 호주 빅토리아주 송전망 운영사 오스넷과 약 3100억원 규모의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초고압변압기와 리액터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북미 시장에서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초 북미에서 7870억원 규모의 전력기기를 수주했다. 업계에서는 효성중공업의 올해 상반기 북미 누적 수주액이 2조5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도 2분기 실적 확대가 예상된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28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압변압기 등 고부가 전력기기 매출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는 최대 1조1212억원 규모의 배전기기 및 전력기기 장기 공급 기본계약을 맺었다. 제품은 북미 지역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에 2028년까지 순차 공급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가 변압기뿐 아니라 배전기기와 회전

기기 등으로 넓어지면서 공급 범위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를 반영해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수주 목표도 기존 42억2200만 달러에서 51억8500만 달러로 22.8% 상향 조정했다.

LS일렉트릭도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5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미국 빅테크 기업과 북미 AI 데이터센터용 38kV급 고압 배전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수주 규모도 1조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로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초고압변압기와 배전기기 발주는 당분간 견조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력기기는 제작 기간이 길고 고객사별 사양 차이도 큰 만큼 수주잔고를 매출로 연결할 생산능력과 납기 관리가 하반기 실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산업현장 공정열 시장 공략

아진P&P에 히트펌프 시스템 공급

LG전자가 100℃ 이상의 고온수를 공급하는 대용량 산업용 히트펌프를 국내 제지공장에서 상용 가동하며 산업 현장 공정열 시장 공략에 나섰다. 히트펌프는 전기로 공기·물·폐열 등의 열을 회수해 냉난방과 온수 생산에 활용하는 설비다. 가정·상업용 중심이던 사업 영역을 화학 연료 보일러가 담당해 온 제조업 열원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8일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대구 소재 제지기업 아진P&P에 1000RT(냉동톤·냉방능력단위)급 대용량·대온도 차 산업용 히트펌프 시스템 공급을 완료하고 이달 초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R&D)·국책과제로, LG전자를 포함한 15개 산학연이 2023년부터 공동 추진해 왔다. 과제는 고온·저온 온도차 70℃ 이상, 고온 공급온도 108℃ 이

상의 대용량 히트펌프를 개발해 제지 건조 공정에서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에 공급된 제품은 약 90℃ 수준이던 기존 산업용 히트펌프의 출수 온도를 108℃(최대 118℃)까지 높이고 냉방용량은 최대 1040RT를 구현했다. 100℃를 넘는 고온수는 종이 건조가 필수인 제지공장을 비롯해 식품공장 살균 공정, 정유 등 그간 가스·스팀보일러에 의존해 온 산업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 화학연료 연소 대신 전기 에너지와 폐열 회수를 활용하는 만큼 탄소배출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구남영 기자



현대차그룹의 제주도 V2G 실증 시범서비스 참여 고객의 제주도 눈세길 소재 자택에 설치된 양방향 충전기를 기아 EV9이 이용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일상공간 V2G 운영 성과 입증

실제 상용화 기대감 높아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구소나 시험 환경을 벗어나 일반 생활 공간에서 V2G(Vehicle-to-Grid) 운영의 성과를 입증하며 실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V2G 기술을 소규모 발전·저장 자원으로 분류하는 분산에너지 규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제주도에서 V2G 시범 서비스에 참여하는 일반 고객 가정의 양방향 충전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전기차와 전력망 간 충전·방전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현재 현대차 아이오닉 9와 기아 EV9을 보유한 고객 40명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의 가정용 V2G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심야 시간에는 차량을 충전하고,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차량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기를 이동 수단을 넘어 분산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력망 운영 효율 향상과 에너지 안보 강화 측면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제성과 확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10kW급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10만 대가 1시간 동안 동시에 방전하면 최대 1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대형 발전 설비 1기의 출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30년 약 4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금 V2G가 보급될 경우 대규모 유연 전력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의 산식을 적용하면 전기차 420만 대는 1GW급 발전 설비 42기에 해당하는 전력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양수발전으로 구축하려면 약 84조 원이 필요하지만 V2G는 약 5조4600억 원 수준으로 구축이 가능해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축 기간도 양수발전은 7년 이상, 고정형 배터리 저장장치(BESS)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반면 V2G는 기존 차량과 충전기를 활용해 1개월 안팎이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실증을 통해 충전기 연결 빈도와 시간대별 이용 패턴, 배터리 방전 수명도 등을 분석해 상용 서비스 모델과 고객 보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 V2G 기반 에너지 신사업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전력시장 참여 주체나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식 인정과 정산이 어렵다. 거래 참여 자격이나 전력 공급 대가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았다.

산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V2G를 국가 전력망을 보완하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시장도 제주 실증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차의 전력 시장 참여 및 정산·보상 기준 등 법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기업용 SSD 'PM 1763'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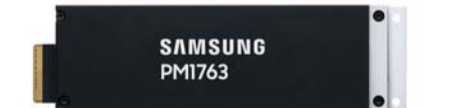
AI 인프라용 메모리 시장 공략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PCIe 6.0 기반 기업용 SSD(eSSD)를 양산하며 AI 인프라용 메모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AI 서버의 데이터 처리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인 제품으로 글로벌 고객사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AI 인프라에 최적화된 PCIe 6.0 기반 기업용 SSD(eSSD) 'PM 1763' 양산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에 9세대 V낸드와 4나노 기반 신규 컨트롤러를 탑재해 제품 성능과 전력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제품은 4TB(테라바이트), 8TB, 16TB의 3가지 용량으로 제공되며, 이 중 16TB 제품은 업계 최고 성능을 구현했다. 16TB 제품 기준 연속 읽기·쓰기 속도



삼성전자 PM1763 제품. /삼성전자

는 각각 최대 초당 2만8400MB(메가바이트), 2만1900MB로, 전작 'PM1753' 대비 약 2배 향상됐다.

PM1763은 차세대 AI 서버에 적용되는 액체 냉각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쿨드 플레이트를 소자에 부착하는 D2C 냉각 방식을 활용해 고부하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장시간 최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작 대비 전력 효율이 1.8배 이상 향상돼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